

# 출판사 네트워크, 통합시스템 개발 시급

## 출판사마다 전산 네트워크로 정보공유... 개발형태의 분산 막아야

최근 몇몇 출판사를 도서의 흐름을 파악하는 영업전산망, 사내 업무를 공유할 수 있는 업무네트워크, 편집의 운용을 확대할 수 있는 편집전산망을 하나로 묶는 인트라넷을 구축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출판계가 미래지향적 통합 전산망을 구축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 영업·편집·기획 등에 전산자료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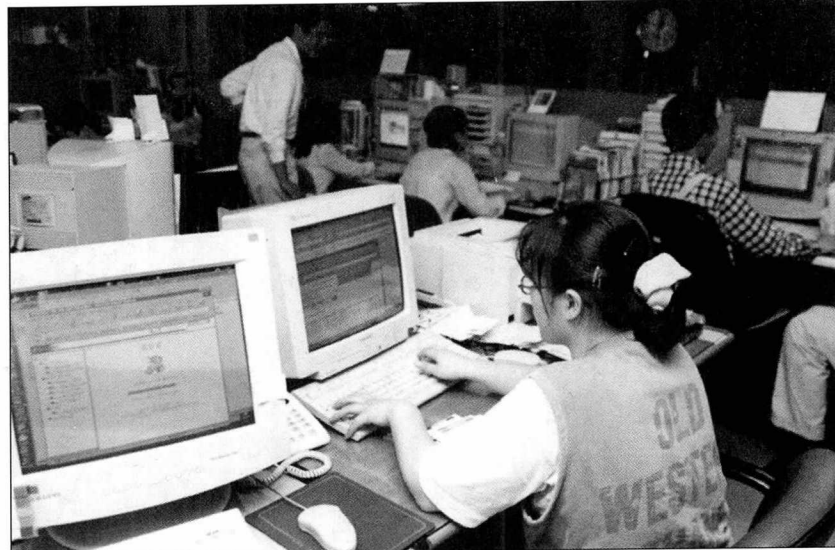
영업은 출판사의 생명을 기증할 만큼 중요한 분야이기에 영업전산망에 대한 관심은 각별하다. 영업을 파악하면 편집·기획·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첨단 영업전산망을 갖추는 것은 어느 출판사나 다름없는 원형이다.

현재 출판사 대부분은 영업전산망을 구축했다. 컴퓨터가 일반화되기 시작한 87년경부터 도입한 체계는 도스형 전산 프로그램, 대교·웅진·금성·두산동아 등 자체 전산실을 갖춘 초대형 출판사와 전산망이 필요 없는 극소형 출판사를 제외한 95% 이상이 도스형을 사용하고 있다.

출판사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관리하는 내용은 대체로 거래처·입출고·판매·입금·미수금·재고·자료·서점·회원관리·증정본 등이다. 이를 일·주·월·분기·년 단위로 분석한 자료를 영업에 활용하고 있다. 한울림 송주환 대표는 "전산자료 활용으로 도서 기여도, 판매동향, 독자기호 등을 파악할 수 있고, 재생과 재판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산자료는 영업에 활용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회원관리 등으로 새로운 도서를 기획하고,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도 있다. 출판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전산망을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도스형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도스형은 5~6개가 프로그램 사용 언어에 따라 운용체계가 다르고, 출판사의 특성에 따라서도 다르다. 유통업체도 다르기 때문에 이미 전산망을 구축한 출판사도 유통업체에 맞는 전산망 구축을 위해 비용을 재투자해야 한다.

도스형은 대부분 윈도우형을 사용하고 편집자 또는 관리자 컴퓨터와의 호환성이 없다. 편집자 또는 관리자가 도서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영업부를 찾아 전산자료를



네트워크 시스템을 잘 갖춘 영진출판사.

보아야 한다. 그래픽을 활용한 자료분석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자료를 한꺼번에 출력할 수 없는 불편함도 있다.

### 인트라넷 운용에 윈도우형 필요

도스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울림·김영사 등은 랜(LAN)을 깔아 사내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즉 윈도우형 컴퓨터에서도 도스형으로 작성한 영업자료를 불러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절름발이 형태이다. 윈도우형 컴퓨터에서는 화상만 볼 수 있고 출력을 하지 못한다. 김영사는 출력할 수 있는 장치까지 마련했지만 여전히 편집자가 자신의 기획을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담당자가 출력한 자료를 별도로 첨부해야 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

도스형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 아예 윈도우형을 설치한 출판사도 있다. 영진과 홍익미디어가 대표적인 곳. 이들은 윈도우형을 구축하여 영업·업무·편집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편집 또는 관리자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거의 윈도우형이다.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윈도우형은 95에서 98년형. 한울림과 김영사에서 보듯이 현재 사용하는 윈도우형은 별도의 장치를 마련하면 그런대로 도스형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윈도우 버전은 도스형을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업전산망, 업무네트워크, 편집전산망을 묶는 인트라넷 구축을 위해서도 윈도우형의 필요성은 강조된다. 디딤돌 등 대형출판사

최근 출판사들마다 편집 기획과 영업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곳이 늘고 있다. 사내에 랜을 깔아 네트워크를 구축한 출판사들은 영업관리의 내용을 편집기획에 활용하거나 모든 결재를 전자상에서 하는 등 장점을 잘 활용하고 있다.

몇 곳과 영진·명진·민음사·한울림 등 단행본출판사 몇 곳은 인트라넷을 구축했으며, 창작과비평사·현암사 등도 윈도우형을 도입 인트라넷을 구축할 계획이다.

각사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인트라넷을 업무·운영·정보·편집·기획·광고·전자결재 등에 활용하고 있다. 편집부원은 자신이 편집한 도서의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하여 다음 기획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도서의 컨셉을 잡는데도 편집진 모두 모여 앉아 토론할 필요 없이 개개인의 생각을 언제든지 첨부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결재자는 직원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서도 전자결재를 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김영사 양승화 전산담당 대리는 "네트워크의 장점은 사내·외에서 벌어지는 모든 출판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트라넷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

은 비용이 소요된다. 투자 대비 효용을 얻을 수 있는 범위를 최소한 70명 이상의 조직을 갖춘 출판사로 좁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 공개입찰로 통합 프로그램 개발해야

정보화시대로 가는 길에 통합 전산망 구축의 장강 앞에 도달한 출판계는 좀더 효율적인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몇몇 출판인은 출판계의 통합 전산망 구축을 위해서는 윈도우형 전산 프로그램을 서둘러 개발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어차피 전산망은 윈도우형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출판계 합의를 기초로 출판사 특성에 맞는 윈도우형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출판사·도매상·서점이 서로 다른 전산체계를 갖추는 악순환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통합 전산 프로그램의 개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프로그래머들의 의견이다. 현재 2백여 출판 관련업체의 전산망을 관리하는 프로그래머 서세원씨는 "몇가지 기술적 문제를 극복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영진의 신민식 팀장은 "앞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출판행위가 빈번해질 것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윈도우형 프로그램을 개발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윈도우형을 개발하는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윈도우형 개발을 이들의 몫으로 남겨둘 수 없다. 방치할 경우 도스형처럼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에 따라 출판계가 각기 다른 전산체계로 중복투자를 하는 잘못을 다시 범할 수밖에 없다.

출판계는 출판 여건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 만약 출판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면 윈도우형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 또는 개인을 끌어들여 프로그램 개발형태의 분산을 막아야 한다. 이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 방법은 공개입찰, 프로그래머 김일희씨는 "공개입찰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프로그램의 오류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판계가 통합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하면 최소한 이미 진행 중인 개발형태의 분산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은 결국 출판계 미래를 위한 자성의 목소리다.

— 오완진 기자